

각 부문 후보들 참석 '0명' "공지에 몰린 골든글로브"

인종차별 논란 영화·방송계 집단보이콧 영향
NBC도 중계 외면...SNS·홈피서 결과 공개

"열리긴 했는데 진짜 열린 게 아닌 기묘한 시상식."(CNN)

미국에서 아카데미와 함께 양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가 배우들은 물론 관객 하나 없이 초라하게 치러졌다. 그 혼란 레드카펫도 없었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가 지난해 각종 부패와 인종, 성차별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각종 제작사와 배우들이 항의 표시로 시상식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한국배우 최초로 TV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오영수를 포함해 '오징어게임' 출연진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작사인 넷플릭스 역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작품을 공식 출품하지 않았지만, 후보 선정은 출품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졌다.

방송 파트너였던 NBC 방송도 중계를 보이콧하면서 시상식은 중계 없이 골든글로브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문자 중계 형식으로 수상자와 수상작을 공개했다. CNN은 "올해 골든글로브는 열리긴 하는데 진짜 열리는 건 아닌 기묘한 시상식"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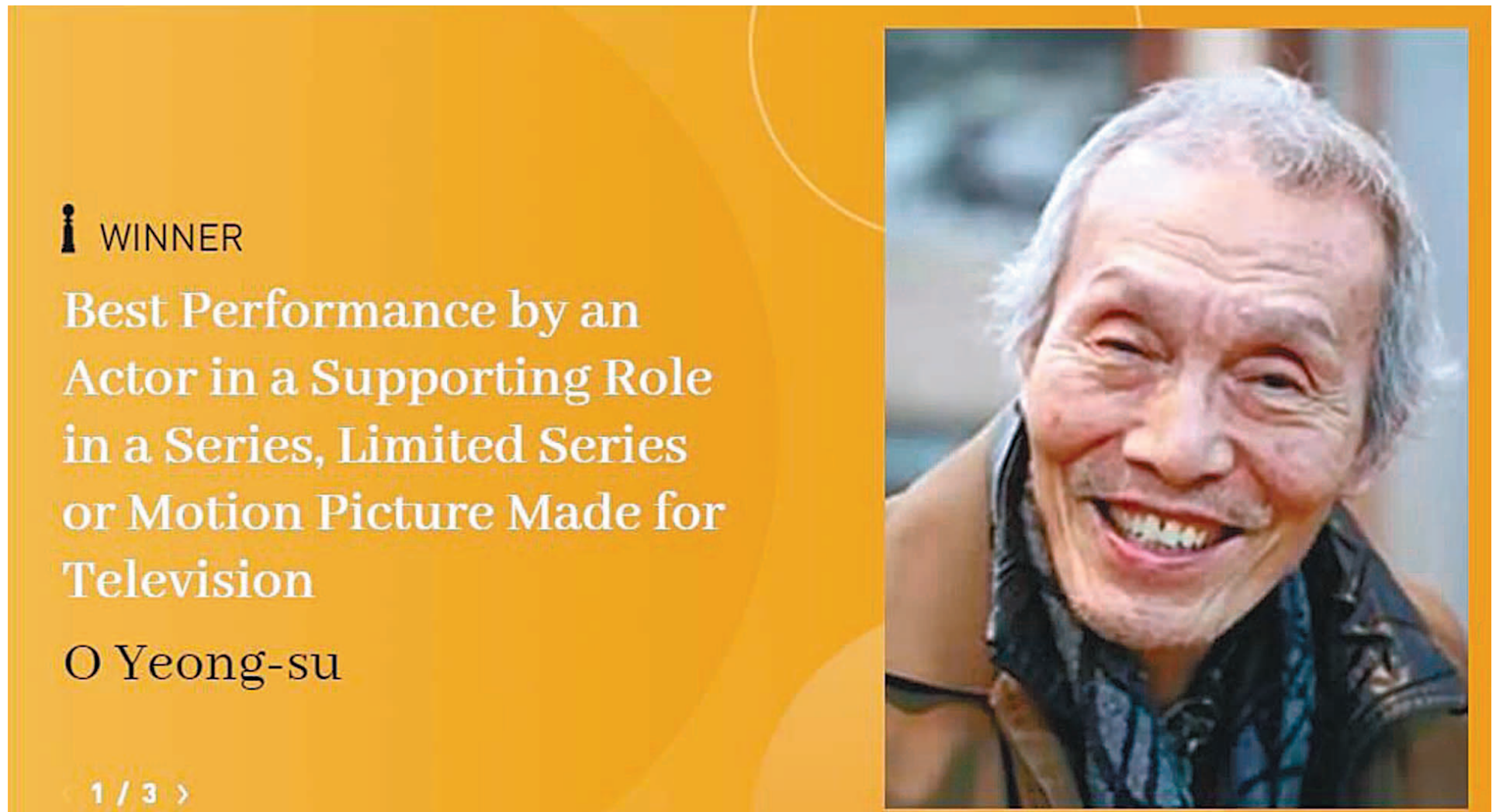
골든글로브는 지난해 5월 HFPA가 백인 위주의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인종 차별 논란이 일었고, 불투명한 재정 관리로 부정부패 의혹까지 불거졌다.

미국 제작사가 만든 영화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분류하고, 작품·감독·연기상 후보에 올리지 않아 인종 차별 논란이 심화됐다. 이후 할리우드 배우 톱 크루즈가 그동안 받은 트로피 3개를 반납했고, 넷플릭스·워너미디어 등 주요 제작사들도 보이콧에 동참했다.

HFPA는 이사회 구성원의 여성·유색인종 비율을 늘리는 등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할리우드의 보이콧은 올해까지 이어졌다. 각종 부문에 후보로 오른 스타들 중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 AP통신, 할리우드리포터 등은 이날 "공지에 몰린 골든글로브"라며 시상식의 썰렁한 분위기를 전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9@donga.com

한국 사상 첫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골든글로브 측은 1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의 TV부문 남우조연상 수상 소식을 알렸다. 사진출처 | 골든글로브 공식 홈페이지 캡처

“수상 기쁘지만 평정심...공연 연습 있어요”

“너 참 괜찮은 놈이야!”

여느 화려한 시상식처럼 시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만 생중계하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의 짧은 설명과 함께 “O Yeong-su”(오영수라는 영문 이름의 텍스트만 공개했을 뿐이다.

세상을 뒤흔든 순간이었다.

여든을 앞둔 노인은 수상 소식을 넷플릭스 관계자에게 전해 듣고,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오영수(78)는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거머쥐고 쏟아지는 축하 전화에도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죠.”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내게 말했다...오영수, 너 참 괜찮은 놈이야 세계속의 우리가 아닌 우리속의 세계...모두 아름다운 삶 사세요”

그는 지난해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인기를 뒤로하고 7일부터 연극 '라스트 세션'에 출연 중이다. 이날도 당장 11일 오후 8시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너무 기쁘지만, 연습을 위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기본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가 연극 무대를 고집한 이유도 자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당시 '라스트 세션'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갑자기 부각되니까 광고와 일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며 “배우로서 가지고 있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혼란스러웠다. 자제력을 잃진 말아야지 하는 중에 이 연극이 왔다. 연습하면서 다행히 평심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가 많은 이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건넨 메시지는 유재석의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에피소드도 유명하다.

“정말 붕 뜬 기분이고, 지금은 조금 내 자신을 정리하며 자제심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1등 아니면 안 될 거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등은 1등에게 쫓지만 3등에게 이긴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승자죠. 진정한 승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애쓰면서 내공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 메시지는 아직도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다.

● “여러분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영수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이날 역시 짧은 수상 소감에서 이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입니다.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앞서 ‘오징어게임’과 관련된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사람 등 ‘아름답다’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다”며 “내가 언젠가 무대를 떠날 텐데 그때 떠나는 뒷모습도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임성재, 새해 첫 대회 톱10...“미스샷 줄여 앞으로 기대”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최종 24언더·268타...공동 8위
스미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한국 남자골프의 간판’ 임성재(24)가 새해 첫 대회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우승 영광은 캐머런 스미스(호주)에게 돌아갔다.

임성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의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2년 첫 대회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820만 달러·97억 8000만 원)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24언더파 268타로 케빈 키스너(미국)와 함께 공동 8위에 자리했다.

톱10에 이름을 올렸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표다. 1, 2라운드에서 각각 6언더파를 치며 공동 5위로 반환점을 돈 임성재는 3라운드에서 8타를 줄이며 공동 4위로 올라섰지만 마지막 날 순위가 뒷걸음질을 쳤다.

전년도 PGA 투어 챔피언들에게만 참가 자격을 부여해 ‘왕중왕전’으로 불리는 이 대회에서 지난해 공동 5위를 차지했던 그는 “조반에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해서 분위기

이름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캐머런 스미스(호주)	34언더파 258타	65-64-64-65
준우승 온 램스(페인)	33언더파 259타	66-66-61-66
3위 맷 존스(호주)	32언더파 260타	70-67-62-61
4위 매트릭 켈러(미국)	26언더파 266타	66-67-66-67
공동 5위 글린 모라카와(미국)	25언더파 267타	68-70-67-62
6위 자스틴 토마스(미국)		74-67-61-65
7위 대니얼 버게(미국)		66-66-66-69
공동 8위 케빈 키스너(미국)	24언더파 268타	69-68-66-65
임성재		67-67-65-69

※ 브라이슨 다성보 16언더파 공동 25위, 필 미켈슨 14언더파 공동 30위
※ 김시우 17언더파 공동 23위, 이경훈 13언더파 공동 33위

를 못 탄 것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새해 첫 대회부터 톱10에 들어 만족한다”고 2년 연속 톱10 진입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부터 스윙 느낌을 바꿨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보다 미스샷이 줄었다. 정확도가 조금 생겨 앞으로 기대가 된다”며 “다음 주도 하와이에서 경기(소니 오픈)하는데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계랭킹 21위 스미스는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낚아 함께 34언더파 258타를 기록해 세계랭킹 1위 온 램스(페인·33언더파)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상금 147만6000달러(17억6000만 원)를



PGA투어 2022년 첫 대회로 하와이 마우이섬의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열린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참가한 한국 남자골프의 간판스타 임성재. 4라운드 최종 24언더파 268타로 공동 8위에 올라 새해 첫 대회부터 톱10 진입이라는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카팔루아(미 하와이주) | AP뉴시스

손에 넣었다.

람과의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도 4라운드 내내 단 한 번도 리더보드 최상단을 내주지 않으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영광을 안은 스미스는 나흘 동안 보기가 단 3개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특히 2라운드 2번 홀에서 대회 세 번째 보기를 적어낸 뒤 4라운드까지 52홀 연속 노보기 행진을 이어가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새해 첫 대회 우승 기쁨을 안았다. 34언더파는 2003년 에니 엘스(남아공)가 이 대회에서 우승할 당시 기록한 31언더파를 3타 뛰어넘는 PGA 투어 역대 최다 언더파 신기록.

지난해 6월 US 오픈 우승에 이어 PGA 통산 8승에 도전했던 램은 4라운드 18번 홀까지 우승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스미스에게 막혀 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하지만 세계랭킹 2위 콜린 모라카와(미국)가 25언더파 공동 5위에 랭크되면서 ‘세계 넘버1’ 자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시우(27)는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함께 17언더파로 공동 23위에 랭크됐고, 이경훈(31)은 6타를 줄여 함께 13언더파 공동 33위에 머물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명품 옷 입고 명품 포즈...역시 김연아!

‘피겨여왕’ 김연아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명품 의상을 입고 아이스링크 위를 누비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의상을 소화한 그의 자태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 2014소치동계올림픽 은메달을 따냈다. 사진출처 | 김연아 SNS